

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 말씀요지

1. 인사말

- 회의에 참석해주신 금감원장님, 협회장님, 연구원장님, 그리고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
-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 석달 동안, 금융개혁을 주어진 소명으로 생각하고 쉼없이 달려왔음
 - 아직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금융개혁의 성과로
①개혁과 변화의 공감대가 확산, ②현장 가서 몸 낮춘 감독당국,
③금융회사 혁신노력 시작 등으로 평가
 - 다만, ①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초기단계이며,
②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,
③당국의 태도 변화가 핵심
- 따라서, 진정한 금융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금융개혁의 절반이자, 핵심 과제인 금융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
 - 금년초 금융기관 CEO입장에서 “규제개혁을 절대절대 포기 말라는 절절포”를 당부 드린 적이 있음
 - 취임 이후 줄곧 “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”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할지 고민 → “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” 마련
 - 이 추진방향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중지를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함
 - 금융현장·수요자 중심으로 규제개혁 작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음

2.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

- 그동안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제도개선이 많이 있었으나, 아직 규제가 금융의 자율과 경쟁을 제약하고 여전히 불합리하고 불편하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임
 - 특히, 규제개선 노력을 많이 하였지만, “현장의 통제받지 않은 권력”, “그림자 규제” 등으로 현장이 힘들어하고 개선해야 할 규제가 많다는 소리가 저에게까지 직접 들리고 있음
 -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체계 개선도 중요하고 규제기관의 인식과 마인드·행태도 철저하게 변화해야 할 필요
- 이번 규제개혁은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과 함께 규제에 대한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의 인식과 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

< 금융규제 유형화 및 합리적 개선 >

- ① 먼저, 규제 전체를 유형화하고 유형마다 다르게 접근
 - 금융규제 전수조사 → 규제목적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
 - 법령, 감독규정,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, 행정지도, 모범규준, 가이드라인 등 소위 ‘그림자 규제’도 전수조사
 - i) 시장질서, ii)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 : 강화 또는 정교화
iii) 건전성규제 중 과도한 부분 :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
iv) 영업행위 규제 : 과감하게 완화
 - 특히, 금융업 경쟁체제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추진
 - 금융회사 개수 측면에서는 독과점 상태라 보기 어렵지만, 실제 금융회사는 차별성 없는 판에 박힌 영업형태 지속
- * 은행은 담보대출 위주, 증권은 위탁매매 전념, 보험은 유사한 상품 등

- 금융업의 차별성·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, 보험슈퍼마켓 등 **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도입**하고,
- 진입기준·업무범위·상품개발 등과 관련된 **영업활동 규제**를 **대폭 완화**해 나갈 것임

② 둘째, 규제합리와 기준에 따라 금융규제 전체를 하나하나 점검

< 합리화 기준 >

- ① 사전 규제 → 사후 책임 강화
- ② 글로벌 기준에 부합(선진사례 벤치마킹)
- ③ 오프라인 → 온라인 시대에 적합 규제
- ④ 포지티브 → 네거티브 방식
- ⑤ 업권별·기능별 규제수준 맞춰 경쟁촉진
- ⑥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 정비 등
- ⑦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

③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개혁 추진

- 업계·연구기관에서 **개선해야 할 규제**를 「검토·제기」 하면, 금융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과제는 수용하고, 수용이 어려운 과제는 「상세히 설명·소명하거나 대안」을 제시
- 금융당국도 개혁내용을 왜곡시키지 않고 시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금융현장의 실무자 마인드까지 변화시키는 노력 병행
- 아울러, 규제개혁 이후 **부작용**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개혁의 효과를 **지속적으로 분석·점검**해 나갈 예정

<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의 인식·행태 개혁 >

- ① 현장의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을 근절 → 외부기관의 정기적 서베이 등을 통한 상시 점검
- ② 「현장점검반」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청취하여 개혁과제 발굴 및 개선 → No Action Letter, 유권해석 활성화 등

- ③ 특히, 금융규제 「**옴부즈만 제도**」를 도입 → 규제기관이 아닌 독자적인 제3자의 시각으로 불합리한 규제 등을 시정·개선 권고

- ➡ 규제 개혁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화되도록 금융당국이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화한 「**금융규제 운영규정**」을 마련 → 위반시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

- 규제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**금융권이 자율책임문화를 정착**시키는 노력을 반드시 같이 해야 함

- ① 적극적·창의적 금융인 인정받는 시스템 구축 → 인사·보수·성과평가시스템(KPI) 개선, 창의적 금융상품 개발 촉진
- ② 새로운 규제환경에 대비하여 자체역량 강화 등 먼저 준비 → 규제 폐지에 부담을 느끼거나 자체 문제를 규제 탓 하면 안됨
- ③ 규제를 푼 만큼, 내부통제제도를 보다 확고히 구축할 필요 →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면 철저히 책임

3. 마무리 말씀

- 금융규제개혁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하는 것 → 금융회사, 협회, 연구원 등 **모든 금융 관계자의 협업 필요**
- 금융회사는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현장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제언
- 협회와 연구원은 자체 TF를 구성하여 합리화 기준에 따른 규제 존치 필요성을 꼼꼼히 점검 →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가능
- 금융당국도 모든 규제를 폐지한 상태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규제만을 찾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규제개혁 추진
- 이번 금융규제개혁이 우리 금융의 30년 성장에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